



제목	Byzantine Religious Culture: Studies in Honor of Alice-Mary Talbot
발행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발행처	Brill
발행일	2011. 10. 28.
저자	Denis Sullivan, Elizabeth Fisher, Stratis Papaioannou(편집자)
출판도시	Leiden and Boston
페이지수	473
ISBN 또는 ISSN	978-9004212442

내용 요약

이 책은 비잔틴 학자 앨리스 메리 탈보트(Alice-Mary Talbot)를 기념하여 후학 비잔틴 학자들의 연구논문을 편집한 책이다. 탈보트는 비잔틴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책과 논문으로 발표했으며, 특히 성인전기와 영성, 비잔틴 여성, 기적 전승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3명의 편집자를 포함하여 총 27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이 책은 탈보트의 연구의 핵심 주제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 “여성”, 둘째, “이콘과 이미지”, 셋째, “텍스트, 의식, 공간”이다.

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첫 번째 섹션은 “여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시리아의 설교자가 관심을 기울인 성서의 멸시당한 여성에서부터 비잔틴의 교육받은 여성과 12세기 비잔틴제국의 공주 안나 콤니니(Anna Komnene)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두 번째 섹션은 비잔틴 기독교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이콘과 이미지”의 주제를 다룬 총 9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이콘과 이미지는 크리소그래피(chrysography), 동전, 부적, 납으로 만든 병에 그린 이콘에서부터 동정녀 마리아와 성녀 안나를 묘사한 도상 그리고 성상과 괴논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연관된다. “텍스트, 의식, 공간”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세 번째 섹션에는 비석의 글과 환호를 통해 성인전기와 성인 제의를 연구한 논문, 콘스탄티노플의 성 디오메데스 수도원의 기원과 역사를 다룬 논문, 9-12세기 남부 이탈리아의 성인들에 대한 연구,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아타나시오스 1세의 유언을 다룬 논문 등 앞의 두 섹션보다 더 광범위한 주제를 담은 10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